

문득 든 생각을 블로그에 남겨본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무엇인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

자공이 물었다. "평생을 지니고 다닐 한 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서(恕)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논어 12편 안연편(顔淵篇)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김건모, <핑계(1993)> 中

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역지사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껏 거의 좌우명 삼아 살아왔다.

토론할 때, 상담할 때, 발표할 때 등등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역지사지에서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

이걸 왜 놓칠까 싶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역지사지를 체화하는 첫걸음은 보통 이렇다.

'만약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상대방과 처지가 바뀐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고민해 보는 것이다.

물론 이조차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겠으나, 집에 불이 난다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는 등 피해가 크면 이러한 역지사지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지사지가 '내가 좋은 건 상대방도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은 것이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피해가 크지 않거나 나에게 있어 그다지 큰 피해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

앞서 인용한 김건모의 노래 가사를 들은 사람이 '응 내가 너라면 웃었을 거야'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말한 것일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하나고?

내가 그랬다.

ㅎㅎ

이렇게 되면 역지사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이 관대(?) 하거나 둔한 사람이라 관찮은 것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심해진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그렇다.

ㅎㅎ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 혼자 사용하던 숟가락을 다 같이 먹는 국에 직접 갖다 대거나
- 한 입 베어 문 튀김을 다시 다 같이 먹는 소스에 찍어 먹거나
- 치킨 같은 음식을 손에 묻히고 손가락 빨아가며 먹거나
- 식사 중 코를 풀거나
-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거나
- 후루룩 찹찹 먹는 소리를 내거나
- '한 입만'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나눠주지 않거나
- 무언가 떨어지거나 몸에 묻었을 때 입고 있던 옷소매 같은 것으로 쓱쓱 닦거나
-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거나

적절한 예시들을 제대로 선별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에 따라 관찮다/관찮지 않다가 갈릴 법한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봤다.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인지, 환경에 따른 식사 예절 차이가 커서인지 식사 예절과 식문화 관련한 예시가 많다.

내가 든 예시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저 예시 대부분이 남이 나에게 해도 관찮은 행동이다.

그래서 상황을 어느 정도 가리긴 하지만 남에게 해당 행동들을 자주 보이곤 한다.

나는 남이 나에게 이래도 관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정작 남에겐 그렇지 않은 상황이 꽤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앞서 든 예시 중 맨 아래 두 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나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만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냉랭하다면 서운하고 화도 날 만하다.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이렇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처럼 나를 기준으로 역지사지를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관인엄기가 뒤따라야 한다.

관인엄기란 무엇인가?

청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의 수신덕목 중에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관인엄기(寬人嚴己)이다.

<https://blog.naver.com/sdkim2010/40095011964>

나에게 있어 기준이 매우 엄격해야 한다.

나는 곧 상대방이니까.

평생 동안 나 자신도 알기 어려운데, 상대방을 안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은 어쩌면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일단 최악을 상정하여 간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이 상황을 최대한 불편하게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찌 보면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것과 똑같다.

최대한 까다로운 케이스까지 고려해야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야 실수 횟수가 줄어들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민폐라도 덜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사실 말만 번지르르하지, 아직 한참 멀었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서 인용한 논어 구절(네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을 명제로 접근해도 재미있다.

not A(내가 원하지 않는 것) \rightarrow not B(남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명제)

A(내가 원하는 것) \rightarrow B(남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남이 원하는 것이다. (이)

이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역지사지 과정에서 하기 쉬운 실수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B(남이 원하는 것) \rightarrow A(내가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대우)

대우는 항상 참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으면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은 특별한 배려 없이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진실로 남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원하는 척하다 보면 심적으로 지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걸 원 명제도 마찬가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